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43〉

勸參禪文
(권 참 선 문)

忽若心光 透徹 凝滯氷消
홀약심광 투루 응체빙소
直下分明 豈昧三祇之極果
직하분명 기매삼지지극과
本來具足 何放萬行之因華
본래구족 하방만행지인화
由是 宗說兼通 若果曰 處虛空之界
유시 종설겸통 약고일 려허공지계
心身俱靜 如琉璃 含寶月之光
심신구정 여유리 합보월지광

홀연히 마음의 빛이 유루(번뇌)를 뚫어 응어리가 얼음녹듯 녹는다면
곧 바로 분명할 것이니 어찌 삼아승지겁의 극과(부처자리)에 어둡다 할 것이며 본래부터 구족하니 어찌 만행을 닦아 이루는 성불의 꽃이 방해를 받을 것인가. 이러므로 종통·설통함이 밝은 해가 허공에 뚜렷함과 같을 것이며
심신이 함께 고요하기를 마치 유리구슬에 보배 달의 빛이 비춤과 같으리라.

可謂 蓬生麻中 不扶自直
가위 봉생마중 불부자직
衆流入海 總號天地
중류입해 총호천지
反觀前非 方知大錯
반관전비 방지대착
忠言逆耳 敢覺銘心
충언역이 감기명심
此世他世 同爲法侶
불무경상 현성리양 위편
不奉君親 免事征役 爲安
불봉군친 면사정역 위안
假名服腐世緣 以騖諍 作佛事
가명복절세연 이투쟁 작불사
老不知悔 死爲糞菌 良可悲大
로부지회 사위원균 양가비대

농사와 길쌈에 힘쓰지 않으면서 당장의 이익과 양생으로 편안코자하며,
임금(나라)과 어버이를 받들지 않으면서 병역을 면해 편안코자하고,
법복에 빗대어 세상인연을 도둑질하며 옳으니 그르니 다투는 일로 불사를 삼고, 늙도록에 뉘우칠줄 모르다가 죽어서 원균(버섯)이 되나니(한 비구가 남의 시주물을 많이 받고 죽어서 버섯으로 태어나 갚았다함) 참으로 크게 슬퍼할 일이로다.

汝輩出家 當思齊草座之前
여배출가 당사제초좌지전
自省園菌之下 可爾
자성원균지하 가이

그대들 출가했을진대 마땅히 부처님께서 풀섶자리에 앉아 수행 정진하신 일을 생각해보고 죽어 버섯이 되어 시주 갚음한 인연도리를 스스로 살펴야 옳을 것이다.

白楊順禪師示衆
(백양순선사시중)

染緣易就 道業難成
염연이취 도업난성

중생제도 근본 잊고 입·몸만 위하는가

차세타세 동위법려

가위 쑥이 삼대 밭 가운데 나서 버팀목없이도 곧게 자람이라 이를만하고 여러 물줄기 바다에 들어 가매 모두 큰 바다라 함과 같다. 돌이켜 전비를 관하면 바야흐로 크게 그르쳤음을 알리라.
바른 충고가 귀에 거슬릴 것이나 감히(내 말) 명심하기를 바라노라. 이 세상 저 세상에서 한가지로 도반이 될지어다.

不了目前萬緣差別 只見境風 浩浩
불료목전만연차별 지견경풍 호호
灣淺功德之林 心火炎炎 燒盡菩提之種
조잔공덕지림 심화염염 소진보리지종
道念 若同情念 成佛多時
도념 약동정념 성불다시
爲衆 如爲己身 彼此事辦
위중 여위기신 피차사변
不見他非我是 自然上敬下恭
불견타비아시 자연상경하공
佛法興時現前 煩惱塵塵解脫
불법시시현전 번뇌진진해탈

東林混融禪師示衆
(동림혼융선사시중)

遊萬乘尊榮 受六年飢凍
피만승존영 수육년기동
不離草座 成等正覺 度無量衆
불리초좌 성등정각 도무량중
此 黃面老爺 反爲口體
차 황면노야 반위구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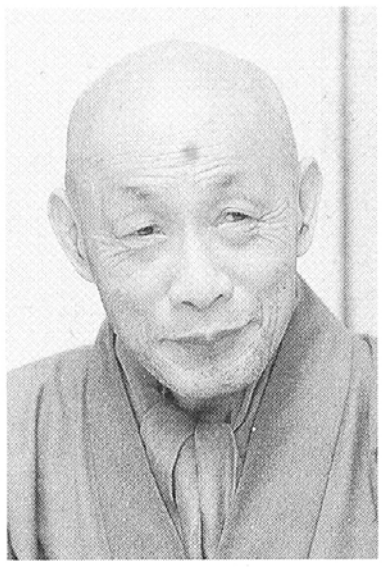
임금의 높은 영화를 마다하시고 육년간의 굶주림과 추위를 겪으시며
풀섶을 자리삼아 떠나지 않고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사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시니 이것이 부처님의 출가하신 모습이거늘 후배들은 근본을 잊고 도리어 입·몸만을 위하는가.

세속인연에 물드는 것은 쉬운일이요 도업 이루기는 어려운 일이다. 눈 앞의 만가지 인연차별을 알아 마치지 못하고 다만 경계의 바람이 호호하여(경계에 걷잡을 수 없이 끄달림) 공덕의 숲은 말라 시들고 마음의 불은 크게 타올라 보리의 종자가 태워 없어지는 것을 볼 뿐이니 도념이 만약 정념같았으면(정념 일어나듯 그러하였다면) 진작에, 벌써 성불했을 것이며, 대중 위하기를 제 몸 위하듯 하면 피차 일에 힘썼을 것이다.
남의 잘못과 나의 옳음을 가려보지 않으면 자연히 상하로 공경할 것이요 (아래 위로 상응할것요) 불법이 때때로 나타나면 번뇌도 티끌마다 해탈일 것이다.(불법이 시시각각 끊이지 않으매 번뇌망상이 그대로 깨달음이니라.) **龍眼**

不務耕桑 現成利養 爲便

성도 절 특집 — '깨달음' 주제로 한 지상법석

"삼독심 정화되는 찰나



운 제 스 님
〈전 태고종 총무원장〉

진 제 스 님
〈해운정사 조실〉

음력 12월8일은 부처님께서 도를 깨달으신 거룩한 날입니다.
부처님의 일생은 거룩하시기에 역사가들이 대개 팔상(八相)으로 말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불가에서는 네가지의 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4월 8일이요, 둘째는 출가하신 2월 8일이요, 셋째는 도를 깨달으신 12월 8일이요, 넷째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2월 15일입니다. 이 날들은 다 기념해야 하는 중요한 날이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기념해야 하는 날이 성도절입니다. 그것은 수없는 중생들이 탄생하였고 수없는 수행자가 출가하였고 수없는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다 갔지만 부처님만이 성도하셨으니 부처님은 성도를 통하여 탄생을 더욱 값지게 하였으며 출가를 더욱 보람되게 하였으며 열반을 더욱 의의있게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의 성도는 우리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새벽하늘의 샛별로 높이 평가받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성도로 우주의 올바른 이치와 인생의 참다운 큰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성도를 이해하기 위해 라의 왕화상(王和尙)은 불공삼장(不共三藏)의 밑에서 도를 구하기 위하여 불이 이글거리는 화로를 머리에 이고 있었습니다.

"인연 연기법 아는 길 나와 남 함께 동참"

우리는 6년동안 도를 닦으신 직접적인 동기와 사문유관(四門遊觀)이라는 간접적인 동기를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법을 위하여는 몸을 잊는 철저한 구도의 마음과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절대적인 중생구제의 종교적인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학자들은 부처님의 성도를 인연법(因緣法)의 깨달음으로 보았고 중국의 학자들은 마음의 깨달음으로 보았습니다.
일본 학자들은 인연법으로 이루어진 현상계를 중요하게 보았고 중국 학자들은 현상계를 이룬 것이 마음이라고 보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불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성도의 내용을 마음의 깨달음으로 보는 이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성도를 위해 6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도를 닦으셨고 최후에는 설산계(雪山偈)의 이야기처럼 인생의 가장 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몸까지를 잊으셨기에 그뒤의 불교수행인에게 큰 유훈을 남기셨습니다. 달마의 제자 혜가스님은 입설삼척(立雪三尺) 단비구도(斷臂求道)로 끝내 달마의 인허(印許)를 받으셨으며 우리 나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뚜이 박사는 인생의 큰 문제를 3가지로 보았으니, 첫째는 인간의 존엄성 확보요 둘째는 문제의 해결이요 셋째는 행동의 변화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성도하신 내용과 똑같은 말입니다. 성도절에 다시한번 부처님의 삶을 돌아봅시다.
부처님의 성도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왕궁을 버리고 태자의 지위를 버리는데는 그보다 더 큰 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종교계는 수정주의(修定主義)와 고행주의(苦行主義)가 유행했습니다. 부처님의 성도는 수정주의보다 고행주의보다 더 위였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보편적인 문제에 착수하고 나와 남이 함께 진리의 길에 동참한다는데 뜻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야 하고 인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신 뒤 최초의 말씀인 〈화엄경〉이나 최후의 말씀인 〈법화경〉과 〈열반경〉의 말씀이 모두 인간의 자각을 일깨우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윤회 굴레 벗어남은 자기수행 여하따라"

(주장자를 들어 법상을 한 번 치시고 말문을 여신다)
맑은 바람이 항상 불고 있고
밝은 달이 항상 빛나고 있음이라.
그러면 맑은 바람이 좋으냐 밝은 달이 좋으냐.
(다시 주장자를 한 번 내려 치시고)

돌로 만든 사람이 피리를 부니
나무로 만든 여자가 춤을 벌렁벌렁 춤이로다.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의 경계는 어떠한 진리를 표현한 것입니까. 돌사람이 피리 불고 나무여자가 춤을 추는 것은 어떠한 진리를 표현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연명백(確然明白)할 것 같으면 모든 성인과 더불어 어깨를 같이하고 억만년이 다하도록 진리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문을 바로 알지 못할 진대는 선(善)도 있고 악(惡)도 있고 천상(天上)도 있고 지옥도 있어서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성도절이건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깨달아야 할지조차 막막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또한 윤회의 괴로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로 부처님께서 오셔서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근본고(根本苦)로부터 영구히 벗어 날 수 있는 수행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인생은 왔기 때문에 결정코 가게 되어 있지요. 가면 어느곳으로 가는가. 가는 그곳을 모르니 죽음에 이르러 공포,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상승의 법문을 착실히 듣고 시간시간 하루하루 자기사(自己事)를 밝히는 선수행을 꾸준히 쌓아갈 것 같으면 그 복잡한 세간살이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에 이르러서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공포, 불안이 일어나지 않게되는 것입니다.
부처님법에서는 과거·현재·미래·전생·금생·내생이 항시 연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들께서도 "전생사를 알고자 할진대는 금생에 자신이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내생사를 알고자 할진대는 금생에 얼마만큼 복과 덕을 쌓았으며 얼마만큼 마음의 지혜를 밝히는 수행을 살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생사안두(生死岸頭)에서 매(昧)하지 않고 윤회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것도 부처님의 신력(神力)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실답게 쌓은 수행의 힘으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애쓰고 애써서 한 생각을 챙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습기(習氣)는 잠자고 화두일념이 무르익어져서 마침내 깨달음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 대중은 이 공부가 어렵다고 하여 중도에서 놓아 버리거나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걸음 쉼없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으스름 달빛 속에 학이 천년의 꿈을 꿈이요
눈집의 사람이 백색의 공적에 미함이니
앉아서 시방을 끊는다 해도 아직은 점애(중국 황하중류에 있는 못) 일세.
한 걸음 슬쩍 나아가야 훨훨 나는 용을 보리라.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정신·육체를 얽매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 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울에의 속상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선 관 단 식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제산제 복용 기아·공복감이 없다
• 뜸치, 해독치, 열탕·자연탕·식물심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 열탕단해수련·선관단해수련·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행고 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L 리리리아리아 호르몬분비소 상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전전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수련장 사찰시 용한면 와룡산 용입선원
안내 ☎ (0593) 34-1115-6

척추교정·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
: 목·허리디스크, 신경통
: 관절염·중풍예방시술법
: 비만 관리 시술법
: 음양오행 건강 지압법
장삼수 건강연구원
압구정역 543-7306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방부제 목재(원목) 수입 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유풍B/D (을지로 2가)
전화 (02)266-2629, 404-9521
팩스 (02)266-2679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46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지회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 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국내 최대 범종주조회사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 (02)733-6141(서울사무소)
☎ (0331)283-2083(공장)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생기와 영업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전해오는 바 생동감을 주는 산작품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실내외 벽화·병풍 및 액자화 작품
● 불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불사가로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시내 지방 외국 어디나 그림만 또는 표구작품을 해드립니다
우만(宇滿)화실
서울 용산구 청파1가동 173-1 전화 (02)3273-0081
온라인 국민은행 남영지점 822-24-0171-328(우만)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한남상사
Tel: 02)795-4083, Fax: 02)792-9659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 (02)279-2715
팩스 (02)275-3739

허공에 서려 묻혀진 세월
●젊은 날의 외로움이 이 작은 책에 사리사리 서려져 저 허공에 메아리처 울려 퍼지리라●
스님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한 왕남을사로서, 한 젊은이의 외로움과 공허가 여기 남기져 있다
지금 어느 누가 이 젊은이만큼의 넓은 눈과 넓은 마음을 가졌을까?
당신이 젊은이라면, 이 책은 당신이 모르는 또다른 당신을 얘기한 것이다.
호 반출 판사 ☎ 02) 3673-0224
※ 교보·영풍문고에 있습니다. 정가 5,000원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법상·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용각 목조탑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성남(법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수미단 용각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 쉽게 풀이된 해설 「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 학교수업식 「강의 녹음」 학습
대학 졸업과정 | ⊙ 철저한 1:1 「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영·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개별지도용)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일(남, 27세) 드림—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항만청별관 2층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서비스 080—023—4600